

박지원·김영록 민주 복당될 듯

DJ “남북관계 악화 일시적 현상”

당원자격심사위 ‘적격’ 판정...이윤석 의원은 ‘보류’

지난 4월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영록, 박지원 의원의 민주당 복당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윤석 의원의 복당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사무총장)는 12일 오후, 전날까지 복당을 신청한 3명의 의원에 대한 복당 심사를 벌여 김·박 의원에 대해서는 ‘적격’ 판정을 내리고 이 의원에 대해서는 ‘보류’ 판정을 내린 후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또 이들 무

소속 의원의 복당 결정을 오는 21일 까지 결론짓고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들 3명의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반발해 곧바로 탈당했으며 출마한 뒤 당선됐다. 또 총선 기간 중에도 복당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선거 후에도 복당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총선 이후 친민주계 무소속 의원의 선별 복당 방침을 밝혀왔으며 국회 내에 제3교섭단체의 등장으로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

배분이 줄어들 것을 우려, 복당 절차를 서둘렀다.

이날 복당 심사에서는 탈당 후 1년도 안 돼 복당을 허용 할 경우 당의 기강이 서지 않는다는 일부의 반론 때문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호남 무소속 의원들의 성향이 민주당의 색깔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단 한 명의 인재라도 소중히 해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들의 복당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의원의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



〈박지원 의원〉 〈김영록 의원〉

홍업 전 의원과 민주당과의 관계를 고려, 곧바로 복당을 허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일부 심사위원의 의견이 제기되면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또 다른 호남의 무소속 강은대, 유성업, 이무영 의원은 이날까지 복당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정기자 jkpark@kwangju.co.kr

‘도교 피랍’ 생환 35주년 기념행사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도교 피랍’ 생환 35주년을 기념하는 미사 및 오찬 행사가 생환기념일을 하루 앞둔 12일 동교동 김대중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인 박지원 의원과 권노갑 전 새천년민주당 고문, 한광옥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 박준영 전남지사, 김상헌·김옥두·윤철상·배기산·신계륜·설훈 전 의원, 김태량 전 국회 사무총장 등 동교교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문화상국회 부의장, 박주선·전병헌 의원을 비롯해 ‘김대중 납치사건 진상규명 시민모임’ 대표를 맡았던 한승헌 전 감사원장, 김 전 대통령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도교 피랍과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따른 사형선고 당시 상황 등을 회고한 뒤 “일생 동안 공산당에 1번, 군사독재 때 4번 죽을 고비도 넘겼고 6년 반 감옥살이도 했고 20년 가까이 망

명이나 연금 등의 생활을 했다”며 “거울 속 제 얼굴을 보고 정말 잘 견뎠다고 스스로 말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지만 동지들과 지지해 준 국민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특히 남북관계에 대해 언급, “지금은 상황이 나쁘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남북 문제는 결코 옛날 냉전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라며 “지금은 팍 막힌 지경이지만 크게 보면 상당히 전망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자 회담은 앞으로도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결국 성공할 것이고, 지난 71년 대선 당시 제가 내세웠던 4대국 한반도 평화보장 시대가 오면서 남북은 큰 협력의 단계로 들어설 것”이라며 “한강의 기적”이 ‘압록강의 기적’으로 옮겨가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도교 피랍’ 생환 35주년 기념행사에서 김 전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7대 폐기법안 ‘재탕’에 ‘짜깁기’

■ 민주당 의원들, 법안 발의 ‘실적 올리기’ 추태

일부 다선은 한 건도 없이 ‘배짱’ 의정 활동

18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 발의가 흉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난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재발의하면서 ‘재탕’ 및 ‘베끼기’ 논란에 휩싸여 있다. 또한, 일부 다선 의원들은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은 채 ‘배짱 의정 활동’에 나르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12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지금까지 법안 발의에 나선 의원은 모두 14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일부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동료 의원이 발의했다가 폐기된 법안을 재발의한 것으로 나타나 ‘베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우선 무소속의 이윤석 의원(무

안·신안)의 경우 총 4건의 발의 법안 가운데 2건을 지난 17대 국회에서 이영호 의원이 발의했다가 폐기된 법안을 재발의 했다. 또, 3건의 법안을 발의한 유선호 의원(영암·강진·장흥)과 서갑원 의원(순천시)도 각각 17대 국회에서 이호용 의원과 최구식 의원이 발의했다가 폐기된 법안을 재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석 의원 측은 “이영호 전 의원이 중요한 법안인데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다며 재발의 해달라고 부탁, 재발의하게 됐다”고 해명했

으며 유선호 의원 측은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중요한 법률이라서 재발의 했으며 베끼기 의도는 단 1%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7대 국회에서 자신이 발의했다가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 ‘재탕’ 눈총을 받고 있는 의원도 상당수에 달했다.

3선의 이낙연 의원(영광·함평·장성)도 5건의 발의 법안 가운데 3건을 자신이 17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폐기됐다며 재발의 했으며 주승용 의원(여수)도 3건의 발의

법안 가운데 2건을 17대서 발의했다가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3건의 법안을 발의한 김동철 의원(광산 갑)도 자신이 발의했다가 폐기된 1건의 법안을 다시 발의했으며 우윤근 의원(광양시)의 발의 법안 7건 가운데 2건도 지난 17대 국회에서 자신이 발의했다가 폐기된 법안이었다.

한편, 일부 다선 의원들은 법안 발의에 나서지 않고 있는 ‘배짱’ 의정 활동을 보이고 있다.

우선 5선의 박상천 의원과 김영진 의원, 3선의 김성근 의원은 단 1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선의 박주선, 강은대, 강기정 의원도 법안 발의를 하지 않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30억 수수’ 김옥희 선거법 위반 적용키로

대통령 부인의 사촌인 김옥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2부(우부 부부장검사)가 김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김씨에게 돈을 건넨 김중원 서울서비스산업조합 이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돈을 받은 쪽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형사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돈을 받은 뒤 실제

대한노인회에 집요하게 청탁해 김 이 사장이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봐 구속 때 적용한 사기 혐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가 김 이사장과 친박연대 후보 박모 씨, 서울시의원 이모 씨, 전직 국회의원 오모 씨 등 4명을 상대로 한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 말고도 취업을 미끼로 주변 사람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사실을 추가

로 밝혀냈다. 검찰은 김씨의 집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이력서 3~4통과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통해 그녀가 대통령 인척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철은 김씨의 집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이력서 3~4통과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통해 그녀가 대통령 인척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철은 김씨가 A씨 외에 이력서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말한 뒤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자 소환조사 및 계좌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8월 17일 서울시 지방직 시험대비, 광주/전남 수험생 편의를 위한

서울시 지방직 시험장 차량접수

선착순접수! 왕복 2만원! (마감:8월 15일) 상해보험가입, 시험장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공무원 합격 압도적인 1위

한빛 공무원학원

전대후문 부구청장 234-0234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268-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한국경제TV·부동산TV강사진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태환 남 48세 최영아 여 31세)

개강	동형문제풀이	꼭집계단기특강	최종문제풀이
9월 1일	9월 1일 ~ 9월 12일 (지정좌석제)	9월 16일 ~ 10월 5일 (지정좌석제)	10월 6일 ~ 10월 18일 (지정좌석제)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연)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압도 1위 ● 신배합적자본에 추천한 1등급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268-8111

▶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 학정미전, 오지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문관빌딩 4층

44년 전통!! 본원출신 전국수석 배출!! [출연료 평균 98.7점] 합격률 1위!!

공인중개사 최종문제풀이 특강 개강

9월 1일

시험에 꼭! 출제되는 엄선된 문제 꼭집게 강도! 합격률 드려드리겠습니다!

19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합격을 위한 1차 진검승부 "적대합격반" 수강생 모집

● 개강: 9월 1일 ● 모집인원: 선착순 50명 (특기자검류) ● 강의일정: 9월 1일, 10월 17일

▶ 강의장소: 본원 (매주 월,수,목,오,토) ▶ 학원 (매주 월,화,목,토,일)

▶ 수강료: 200,000원 (강의료,문제풀이,문제집,재료)

▶ 교수진: 민법,신법,경제,영어,학개론,실용영어,영어

공인중개사 전문 www.landkor.com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

첨단점 ☎ 971-0002 (구백미터 칠명점 옆 광주은행 4F)

소방 방재청은 인력이 부족한 맞교대 격무부서에 올해안에 2,228명의 소방인력을 충원한다 =

7.9급 공무원 합격 강좌

강좌직종: 행 교 세 관 법 검 철 교 보 보 복 군 토 건 전
정 행 무 세 원 활 공 정 호 전 지 무 복 축 산

하반기 시험

9월 1일(주·아간반 모집) (현재예약접수중)

합격 회원 모집

● 전담: 9급 세무 및 관공제 9월 27일 209명 모집
● 연복: 제2회 8, 9급 기술직 9월 27일 119명 모집
● 통합선관위: 9급 행정직 9월 27일 70명 모집

= 귀하의 합격은 위해 갈(感)이 좋은 학원! 「無等」을 찾아주세요!! =

www.mdgosi.co.kr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취업! 이민!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www.scukorea.com

씨든 크리스찬 CU 한의대

입학설명회 매일 오후 3시/4시

국내수업 가능 인터넷 화상강의실

문의전화 010-6834-6253

입학대상 양방의사, 한의사

자연의학 NMD 의사자격증 특강

캐나다 / 미국 클리닉 개원가능